

대학생의 수업인식에 관한 주관성 연구

심태은¹, 이송이^{2*}

¹동국대학교 역량개발센터, ²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A Study on the Types of College Class Perception among College Students

Tae Eun Shim¹, Song Yi Lee^{2*}

¹Center for Career Development, Dongguk University,

²Dharma College, Donggu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업방식을 도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Q 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Q표본은 33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었고, P표본은 교양수업을 듣는 40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총 4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유형 1은 수업을 통하여 성장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한 '내실 있는 수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 유형 2는 수업을 듣는 과정이 일을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실무능력 향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 유형 3은 수강인원수나 교수와의 소통, 실질적인 환경 등에 중점을 두는 '교육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 유형 4는 스스로 듣고 싶은 수업을 통하여 다양한 지적 역량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개인적인 역량 향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가 대학 수업의 질을 향상하고 다양한 대학생의 수업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subjective structure of classes for college stud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Q-methodology, and 33 various items were selected through a comprehensive review and revision process. Forty college students were selected for the P sample. The results showed four types of perception regarding college classes: Type 1 (Substantial Class-Focused Type) includes those who want to be a mature person through college classes; Type 2 (Practical Class-Focused Type) includes those who have an interest in college classes to develop their work skills; Type 3 (Educational Environment-Focused Type) includes those who feel class size, communication with teachers, and the educational system itself are important; and Type 4 (Personal Competence-Focused Type), which includes those who feel that the right to take classes in order to increase their competence without mandatory classes is very importa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types of individuals in terms of college class perception, as well as to provide reference materials to improve educational innovation for college students

Keywords : College Class, College Students, Education Innovation, Perception, Q-methodology

1. 서론

교육부에서는 잘 가르치는 대학의 교육모델을 만들기 위해 학부교육선도대학(ACE)을 선정하고 각종 대학평가

에서 '수업의 질'과 관련된 영역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이어받아 교육혁신대학사업을 실시하여 질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업의 질과 관련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Corresponding Author : Song Yi Lee(Dongguk University)

email: songyilee@empas.com

Received November 18, 2019

Accepted March 6, 2020

Revised December 13, 2019

Published March 31, 2020

대표적으로 대학은 질 높은 수업을 하기 위해 교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하고, 강의평가제도의 체계화, 강의평가와 업적평가 연계, 관련 전문 행정지원 조직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수요자 측면에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수업,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업, 만족도가 높은 수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교육수요자가 만족하여야만 긍정적인 교육성과를 나타나기 때문이다 [1][2].

구체적으로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이 생각하는 만족도가 높은 수업이란 수업준비 계획, 계획에 맞는 수업운영, 학생특성에 맞는 미디어의 활용, 자발적 학습을 도울 수 있는 강의, 학생에 대한 고려, 공정한 평가, 원활한 피드백 등을 포함한다[3],[4]. 또한 좋은 수업을 3가지 영역(인지적·정의적·행동적)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인지적 영역으로 바라본 수업은 학생의 깊이 있는 사고 과정을 유도하며, 정의적 영역에서 수업은 학생의 흥미, 태도, 감성, 가치관 형성을 촉진하고, 행동적 영역에서의 수업은 학생의 학습 행위와 기능의 발달, 실제적 수행을 촉진하는 수업 특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 중 가장 좋은 수업은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수와 학생의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는 수업이라 하였고, 또한 학생 스스로 자기 주도학습을 통해 정의적, 인지적 변화를 유도하는 수업이 최고의 수업이라 정의하였다[5],[6],[7],[8].

이러한 이론적 기반과 함께 실제 수업은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최대화하여야 하는데 학교에 따른 교육적 상황, 여건, 교육목표 및 내용, 학습자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다르며, 특히 환경적 요인이 달라 똑같은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세분화하여 수업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학생들이 정말 인식하는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9].

다양한 관점 중 교수자 측면에서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 학습의 안내자와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학습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수업과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학습에 대한 행동을 스스로 책임지게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만들며,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조성하고 피드백을 주도록 한다[10], [11]. 그러기 위해 교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므로 교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밖에도 학생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이 잘못된 생각을 파악하고 고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즉 학생들의 언어, 행동을 지도하려는 자세와 애정을 지

녀야만 학생들과의 친밀감도 높아지면서 수업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12]. 그리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이때 공평한 지도가 필요한데 모든 학생들에게 편견을 가지지 말고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지도해야 한다.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만 학생들의 긍정적인 영향이 사회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사는 건전한 사고와 민주적인 가치관, 긍정적인 태도를 항상 유지해야만 하며 집단으로서가 아닌 학생들 개인차에 적합한 학습지도 및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13].

이와 함께 학습자 측면에서는 개념을 습득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여 직접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참여하는 수업이 최고의 수업이라 할 수 있으며, 수업 범주에서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수와 소통하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소통을 간섭이라 생각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교수와의 라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14],[15]. 그밖에도 학습자가 참여하는 수업, 동기를 유발하는 수업, 재미있는 수업, 창의적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수업, 몰입할 수 있는 교수-학습활동의 수업이 최고의 수업이라 할 수 있다[4], [16].

최근에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활동을 강조하면서 플립트 러닝을 중시하는데 개별적 학습활동이 증가하고, 교사의 도움도 증가하여 학생들의 내재적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수업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질 좋은 수업을 위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및 교육 행정가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적 철학과 환경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인식하는 생각들 또한 중요하다. 이들이 수업을 받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 깊이 있게 파악하여야 현재 대학수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의미가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수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수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살펴볼 수 있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수업인식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주관적 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연구방법이자 연

구 분석 방법인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2.1 Q표본

Q모집단은 대학생의 수업인식과 관련된 문헌을 수집하여 이와 관련된 진술문을 만들었다. 또한 대학생들이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묻는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집한 후 이를 기반으로 진술문을 작성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진술문을 반복하여 읽고 중복되는 진술문은 제외하고 가능한 다양한 의견이 포함될 수 있는 총 33개의 진술문을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Table 1. Q Statements

No.	Statements
Q1	Even if it is time consuming, I prefer to take classes which make me think about subjective regarding the classes.
Q2	I make a note of what is important when I take a class for the exam.
Q3	I can't work hard for mandatory classes that I don't like.
Q4	Making a presentation in front of my professor and classmates are very stressful.
Q5	I think college classes are very interesting if I don't take exams.
Q6	No matter how meaningful and interesting the class is, I don't want to take it if it doesn't help me find a job.
Q7	I feel that it is more helpful for my life when I spend time for after school activities instead of taking college classes.
Q8	I pay considerable attention to attendance checks rather than to focusing on the class subjects.
Q9	Even though the subjects of the class are good, I cannot focus on them when the classroom environment is not good enough.
Q10	I prefer a discussion class to a professor's lecture.
Q11	I don't think Team Project is helpful for learning.
Q12	I think the professor's appearance also affects how I have interest in the classes.
Q13	I lose the royalty to my professors when they don't run the classes depending on their lesson plan.
Q14	Even though I want to take various classes, but I cannot take them because too many mandatory major classes unfortunately.
Q15	I feel it is difficult to take my favorite major classes because of the small size of them.
Q16	There are so many classes which are small size, including even literal arts.
Q17	I prefer the practical to the theory studies.
Q18	I think I should take too many unnecessary classes of liberal arts.
Q19	I think that preparing the textbook for the class is a good attitude.
Q20	I feel very stressful when the evaluation of the class is a grade on the curve which make students competitive.

Q21	When I get feedback right after tests, I can prepare for the coming classes.
Q22	I cannot trust professors who communicate their unproved knowledge.
Q23	Questioning to the professor is helpful for learning.
Q24	I feel like a waste of time when I take classes which have different titles and similar contents.
Q25	I like classes where I can communicate with my professor.
Q26	I want to take classes which are helpful for preparing the certificate of relevant future work.
Q27	I think a system such as e- class is very helpful for my academic competence.
Q28	I think college tuition is too expensive compared to what I learn.
Q29	I feel like I'm getting mature through college classes.
Q30	I feel like getting good grades when I give my professors good image rather than my test results.
Q31	I feel uncomfortable when I have a question for my professor because other students might be distracted.
Q32	I feel very distracted when my classmates check their mobile phones or do other things during the class.
Q33	I choose my classes to reduce the time between the major classes or to take with my friends.

2.2 P표본

Q방법론에서 피험자의 수는 요인을 생성하고 요인들 간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여 소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P표본은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들 40명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Q 분류(Q-Sorting)을 실시하였다.

2.3 Q 분류 및 자료분석

P표본이 Q표본을 분류하는 것이 Q분류(Q-Sorting)이다. 본 연구는 Q표본으로 선정된 33개의 진술문 카드를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의미에 더 동의하는지에 따라 정규분포에 가깝도록 강제 분포시키는 방법(forced distribution)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Q분류는 <표2>와 같이 가장 긍정(+4)에서 가장 부정(-4)의 9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Q분류는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긍정, 중립, 부정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도록 한 후 카드 분포 모형에 따라 자신의 동의 정도에 따라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에서부터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을 선택하여 배열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Q표본 분포도에 기록된 진술문 번호를 확인하여 가장 동의하지 않는 문항(-4)을 1점으로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가장 동의하는 문항(+4)의 경우 9점을 주어 점수화하여 코딩한 후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Q-Sorting을 통해 얻

은 P표본의 응답결과를 QUANL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Q요인분석은 주요 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방법을 사용했으며, 아이겐 값(Eigen Value) 1.000이상을 기준으로 각 요인을 산출하고,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Z-score를 활용하였다.

Table 2. Q sorting Distribution

Number of Statements	2	3	4	5	5	5	4	3	2
Score	-4	-3	-2	-1	0	1	2	3	4

3. 연구결과

3.1 결과분석

연구결과 아래의 <표3>와 같이 총 네 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각 유형의 아이겐 값은 각각 1유형이 8.5454, 2유형이 3.7940, 3유형이 2.4335, 4유형이 2.2287이며, 누적변량은 .4250로 나타났다.

Table 3. Variance Analysis

Contents/Type	I	II	III	IV
CHOSEN EIGENVALUES	8.5454	3.7940	2.4335	2.2287
TOTAL VARIANCE	.2136	.0949	.0608	.0557
CUMULATIVE	.2136	.3085	.3693	.4250
SOLUTION VARIANCE	.5026	.2232	.1431	.1311
CUMULATIVE	.5026	.7258	.8689	1.0000

또한 각 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각 유형간의 유사성 정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제1유형과 제2유형은 .336, 제1유형과 제3유형은 .163, 제1유형과 제4유형은 .416, 제2유형과 제3유형은 .306, 제2유형과 제4유형은 .446, 제3유형과 4유형은 .334로 나타났으며, 다음 <표4>와 같다.

Table 4. Correlations

Contents/Type	I	II	III	IV
I	1.000	.336	.163	.416
II		1.000	.306	.446
III			1.000	.334
IV				1.000

3.2 대학생의 수업인식에 관한 특성

3.2.1 인자가중치

인자가중치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유형 1은 P=34이 2.6289로, 유형 2는 P=9가 1.40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형 3의 경우는 P=14가 1.3688로, 유형 4는 P=38이 2.3843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5. The P sample Weight

Type 1(N=13)		Type 2(N=7)	
P Sample	Weight	P Sample	Weight
P=3	.6780		
P=6	1.1542		
P=7	.9992	P=1	.6917
P=11	.4754	P=9	1.4011
P=15	1.1274	P=10	.7551
P=18	.6056	P=17	.7117
P=21	1.2257	P=23	.5668
P=27	.2667	P=29	.4377
P=30	1.3508	P=39	.8199
P=32	.3895		
P=34	2.6289		
P=35	.7590		
P=40	.8300		

Type 3(N=9)		Type 4(N=11)	
P Sample	Weight	P Sample	Weight
		P=2	.2502
P=4	.6958	P=8	.5460
P=5	.7418	P=13	.6506
P=12	.4412	P=16	.3809
P=14	1.3688	P=19	.5993
P=20	.6808	P=26	.7082
P=22	.7403	P=31	.7948
P=24	1.0844	P=33	.5827
P=25	.4870	P=36	.5864
P=28	.5923	P=37	.9063
		P=38	2.3843

3.2.1 유형 1 : 내실 있는 수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

유형1은 경쟁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학습을 통하여 성장하기를 바라는 유형이다. 수업의 질 자체에 의미를 두며 부가적인 것에는 중요성을 두지 않는 특성을 보여 준다. <표 6>을 살펴보면 이 유형은 Q23의 교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z=1.43$)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으며, 반면 가장 강한 비동의 항목은 Q6의 수업이 아무리 의미 있고 재미있어도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듣고 싶지 않다($z=-2.29$)이다. 유형 1의 전형으로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P=34(2.6289)는 “취업도 취업이지만 취업 준비를 따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에서는 흥미롭고 재미를 가진 여러 새로운 강의를 듣고 싶다. 또한 상대와 비교되기보다 나 자신의 수업 참여도

Table 6. The Statements of Type 1 and Z-score(More than ± 1.00)

No.	Statements	Z-score
23	Questioning to the professor is helpful for learning.	1.43
28	I think college tuition is too expensive compared to what I learn.	1.41
29	I feel like I'm getting mature through college classes.	1.19
20	I feel very stressful when the evaluation of the class is a grade on the curve which make students competitive.	1.06
22	I cannot trust professors who communicate their unproved knowledge.	1.06
13	I lose the royalty to my professors when they don't run the classes depending on their lesson plan.	-1.20
33	I choose my classes to reduce the time between the major classes or to take with my friends.	-1.22
30	I feel like getting good grades when I give my professors good image rather than my test results.	-1.27
7	I feel that it is more helpful for my life when I spend time for after school activities instead of taking college classes.	-1.43
12	I think the professor's appearance also affects how I have interest in the classes.	-1.82
6	No matter how meaningful and interesting the class is, I don't want to hear it if it doesn't help me find a job.	-2.29

Table 7. The Statements of Type 1 different from other types and Z-score (More than ± 1.00)

No.	Statements	z-score	AVERAGE Z	DIFF.
29	I feel like I'm getting mature through college classes.	1.188	-.733	1.921
10	I prefer a discussion class to a professor's lecture.	-.537	-2.084	1.547
27	I think a system such as e-class is very helpful for my academic competence.	.544	-.896	1.440
23	Questioning to the professor is helpful for learning.	1.434	.006	1.427
25	I like classes where I can communicate with my professor.	.745	-.438	1.183
11	I don't think Team Project is helpful for learning.	-.666	.444	-1.110
3	I can't work hard for mandatory classes that I don't like.	-.657	.701	-1.358
4	Making a presentation in front of my professor and classmates are very stressful.	-.655	.870	-1.524
33	I choose my classes to reduce the time between the major classes or to take with my friends.	-1.217	.309	-1.527
7	I feel that it is more helpful for my life when I spend time for after school activities instead of taking college classes.	-1.429	.383	-1.812

에 따라 학점이 나왔으면 좋겠다. 수업 때 노트북으로 보는 친구가 시험만 잘 봐서 학점 잘 받는 경우도 보았다. 상대평가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듣고 싶은 교양은 항상 인원이 많기 때문에 못 듣는 경우가 많아서 화가 난다"라고 표현하면서 좀 더 내실 있는 수업을 중시 하였다.

유형 1에서 타 유형 평균과 차이가 가장 큰 긍정 진술 문은 <표 7>에 나타나 있듯이 Q29의 '대학수업을 통하여 내 자신이 성장하는 느낌이 든다($d=1.921$)'이고, 가장 차이가 큰 부정 진술문은 Q7의 '수업을 듣는 시간을 아껴 비교과활동을 한다며 내 인생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d=-1.812$)'이다. 이들은 다른 유형과 달리 토론과 같은 수업 방식을 선호하며 교수와 소통을 통하여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3.2.2 유형 2 : 실무능력 향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

유형 2는 대학수업이 졸업 후 실무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수업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수업

을 선택하거나 기대하는 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8>을 살펴보면 이 유형은 Q4의 '교수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내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준다($z=1.87$)'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으며, 반면 가장 강한 비동의 항목은 Q10의 '교수님의 강의보다 토론이 많은 수업을 선호한다($z=-2.24$)'이다. 유형2의 전형이라고 할수 있는 인자가중치가 높은 $P=9(1.4011)$ 는 "자격증을 학교 수업 안에서 공부하면 좋겠는데 이는 취직할 때 도움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대학수업은 그다지 흥미로운 편이 아니다. 시험 자체도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취업에 필요한 실무능력 향상을 중시하였다.

유형 2에서 타 유형 평균과 차이가 가장 큰 긍정 진술 문인 <표 9>를 살펴보면 Q33의 '수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수업 내용 자체보다 공강시간을 줄이거나 친구들과 함께 수강하기 위함과 같은 부수적인 것이 더 크다($d=2.186$)'이고, 가장 차이가 큰 부정 진술문은 Q5의 '시험만 보지 않는다면 대학수업은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한다($d=-1.889$)'이다. 이들은 수업 자체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공강을 줄이기 위하여 수업을 선택하거나 수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선택하는 특성도 보여준다.

Table 8. The Statements of Type 2 and Z-score(More than ± 1.00)

No.	Statements	Z-score
4	Making a presentation in front of my professor and classmates are very stressful.	1.87
26	I want to take classes which are helpful for preparing the certificate of relevant future work.	1.63
33	I choose my classes to reduce the time between the major classes or to take with my friends.	1.57
20	I feel very stressful when the evaluation of the class is a grade on the curve which make students competitive.	1.36
17	I prefer the practical to the theory studies.	1.34
32	I feel very distracted when my classmates check their mobile phones or do other things during the class.	-1.16
15	I feel it is difficult to take my favorite major classes because of the small size of them.	-1.19
9	Even though the subjects of the class are good, I cannot focus on them when the classroom environment is not good enough.	-1.23
12	I think the professor's appearance also affects how I have interest in the classes.	-1.49
5	I think college classes are very interesting if I don't take exams.	-1.50
10	I prefer a discussion class to a professor's lecture.	-2.24

Table 9. The Statements of Type 2 different from other types and Z-score (More than ± 1.00)

No.	Statements	z-score	AVERAGE Z	DIFF.
33	I choose my classes to reduce the time between the major classes or to take with my friends.	1.567	-.619	2.186
4	Making a presentation in front of my professor and classmates are very stressful.	1.867	.029	1.837
26	I want to take classes which are helpful for preparing the certificate of relevant future work.	1.631	.496	1.136
9	Even though the subjects of the class are good, I cannot focus on them when the classroom environment is not good enough.	-1.234	-.147	-1.087
16	There are so many classes which are small size, including even literal arts.	-.348	.868	-1.216
15	I feel it is difficult to take my favorite major classes because of the small size of them.	-1.186	.135	-1.320
5	I think college classes are very interesting if I don't take exams.	-1.505	.384	-1.889

3.2.3 유형 3 : 교육환경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유형

유형 3은 수업과 관련된 학교 시스템이나 환경에 관심이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현재 수업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표 10>에서 볼 수 있다. 이 유형은 Q28의 '등록금에 비해 배우는 내용이 너무 없는 것 같다($z=1.91$)'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으며, 반면 가장 강한 비동의 항목은 Q10의 '교수님의 강의보다 토론이 많은 수업을 선호한다($z=-2.06$)'이다.

유형 3의 전형으로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P=14(1.3688)$ 는 "교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수업이 좋다. 그 이유는 교수님과 가깝게 느껴질수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유형 3에서 타 유형 평균과 차이가 가장 큰 긍정 진술문은 Q6의 '수업이 아무리 의미 있고 재미있어도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듣고 싶지 않다($d=2.164$)'이고, 가장 차이가 큰 부정 진술문은 Q1의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수업이 더 재미있다($d=-2.298$)'이다. 이들은 수업을 통하여 배우고 성장하는데 관심이 부

족하지만 평가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수업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교수에게 잘 보이는 것이 시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 수업 운영방식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4 유형 4 : 개인적인 역량 향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

유형 4는 자신에게 필요한 수업을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수업에 대해서는 열의를 보이지만 교과과정 제도 안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수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다. 이 유형은 <표 12>에서 나타나듯이 Q18의 '불필요한 공통교양이수 학점이 너무 많다($z=1.96$)'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으며, 반면 가장 강한 비동의 항목은 Q6의 '수업이 아무리 의미 있어도 재미있어도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듣고 싶지 않다($z=-2.33$)'이다. 유형 4의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P=38$ 은 "공학인증 과목이 너무 많아서 타 전공이나 일반교양을 못 들어보고 졸업하게 된다" 고 하였다. 또한 $P=26(.7082)$ 은 "미대의 경우 불필요한 공통교양이수학

Table 10. The Statements of Type 3 and Z-score(More than ± 1.00)

No.	Statements	Z-score
28	I think college tuition is too expensive compared to what I learn.	1.91
26	I want to take classes which are helpful for preparing the certificate of relevant future work.	1.50
18	I think I should take too many unnecessary classes of liberal arts.	1.41
2	I make a note of what is important when I take a class for the exam.	1.25
16	There are so many classes which are small size, including even liberal arts.	1.09
9	Even though the subjects of the class are good, I cannot focus on them when the classroom environment is not good enough	1.05
12	I think the professor's appearance also affects how I have interest in the classes.	-1.18
32	I feel very distracted when my classmates check their mobile phones or do other things during the class.	-1.20
1	Even if it is time consuming, I prefer to take classes which make me think about subjective regarding the classes.	-1.49
29	I feel like I'm getting mature through college classes.	-1.57
27	I think a system such as e- class is very helpful for my academic competence.	-2.05
10	I prefer a discussion class to a professor's lecture.	-2.06

Table 11. The Statements of Type 3 different from other types and Z-score (More than ± 1.00)

No.	Statements	z-score	AVERAGE Z	DIFF.
6	No matter how meaningful and interesting the class is, I don't want to take it if it doesn't help me find a job.	.344	-1.820	2.164
9	Even though the subjects of the class are good, I cannot focus on them when the classroom environment is not good enough.	1.045	-.907	1.952
24	I feel like a waste of time when I take classes which have different titles and similar contents.	.986	-.525	1.511
5	I think college classes are very interesting if I don't take exams.	.820	-.391	1.211
30	I feel like getting good grades when I give my professors good image rather than my test results.	.292	-.811	1.104
29	I feel like I'm getting mature through college classes.	-1.571	.187	-1.758
27	I think a system such as e- class is very helpful for my academic competence.	-2.049	-.032	-2.016
1	Even if it is time consuming, I prefer to take classes which make me think about subjective regarding the classes.	-1.491	.807	-2.298

Table 12. The Statements of Type 4 and Z-score(More than ± 1.00)

No.	Statements	Z-score
18	I think I should take too many unnecessary classes of liberal arts.	1.96
3	I can't work hard for mandatory classes that I don't like.	1.70
1	Even if it is time consuming, I prefer to take classes which make me think about subjective regarding the classes.	1.69
11	I don't think Team Project is helpful for learning.	1.45
2	I make a note of what is important when I take a class for the exam.	1.26
8	I pay considerable attention to attendance checks rather than to focusing on the class subjects.	-1.15
12	I think the professor's appearance also affects how I have interest in the classes.	-1.61
10	I prefer a discussion class to a professor's lecture.	-1.94
6	No matter how meaningful and interesting the class is, I don't want to take it if it doesn't help me find a job.	-2.33

Table 13. The Statements of Type 4 different from other types and Z-score (More than ± 1.00)

No.	Statements	z-score	AVERAGE Z	DIFF.
1	Even if it is time consuming, I prefer to take classes which make me think about subjective regarding the classes.	1.692	-.254	1.946
3	I can't work hard for mandatory classes that I don't like.	1.701	-.085	1.786
11	I don't think Team Project is helpful for learning.	1.448	-.261	1.708
15	I feel it is difficult to take my favorite major classes because of the small size of them.	.698	-.493	1.192
18	I think I should take too many unnecessary classes of liberal arts.	1.958	.921	1.037
6	No matter how meaningful and interesting the class is, I don't want to take it if it doesn't help me find a job.	-2.330	-.929	-1.401
26	I want to take classes which are helpful for preparing the certificate of relevant future work.	-.510	1.209	-1.719

점이 매우 많다. 심지어 전공 시간표도 정해져 나오고, 반드시 그 학기에만 들어야만 졸업이 가능한데, 수많은 공통교양까지 듣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시험을 위해 수업시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잘 메모해 두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교수님들께서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에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수업을 통해 성장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장보다는 내 자신이 했던 방식이나 다른 외부활동을 통해 오히려 더 성장한 것 같다”는 의견을 살펴보면 내게 필요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학습을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형 4에서 타 유형 평균과 차이가 가장 큰 긍정 진술 문은 Q1의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수업이 더 재미있다’이고, 가장 차이가 큰 부정 진술문은 Q26의 ‘자격증을 학교 수업 안에서 공부하면 좋겠다($d=-1.719$)’이다. 이들은 수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수업이 취업이나 자격증에 치중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3.2.5 일치항목

일치항목(consensus items)이란 각 요인이 공통적으로 합의한 항목들을 말한다. 각 유형의 일치항목은 다음과 같이 총 7개로 나타났다.

Table 14. Consensus Items

No.	Statements	Z-score
2	I make a note of what is important when I take a class for the exam.	1.09
20	I feel very stressful when the evaluation of the class is a grade on the curve which make students competitive.	.96
19	I think that preparing the textbook for the class is a good attitude.	.44
21	When I get feedback right after tests, I can prepare for the coming classes.	-.01
31	I feel uncomfortable when I have a question for my professor because other students might be distracted.	-.35
32	I feel very distracted when my classmates check their mobile phones or do other things during the class.	-.85
12	I think the professor's appearance also affects how I have interest in the classes.	-1.52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업방식을 도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총 4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유형 1은 ‘내 실 있는 수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 유형 2는 ‘실무 능력 향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 유형 3은 ‘교육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 유형 4는 ‘개인적인 역량 향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 1은 수업자체에 의미를 크게 두며 교수와 같은 인적자원이나 이클래스와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들은 팀플과 같이 협업을 하거나 발표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대학수업 자체가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형 2는 대학수업이 실용적인 과정이기를 기대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대학수업이 취업해서 실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특성을 보이며 수업 자체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으려고 한다. 즉, 수업은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유형 3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환경적인 질에 대한 향상을 기대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등록금에 해당하는 만큼 원하는 강의를 좋은 환경에서 제공받기를 원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는 교수와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민혜리, 이희원은[4] 학생들에게 심층면담을 통해 좋은 강의에 대한 기준을 내세웠는데, 교수자의 태도 및 열의를 가진 중심으로 좋은 강의의 요소로 구분하였고, 교수와의 소통을 좋은 수업이라는 것을 밝혔다[17]. 이는 유형 3이 인식하는 특성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형 4는 수업이 개인적인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이 되는 수업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업에 대한 요구를 보이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유형 1과 유형 4는 비교적 수업을 통하여 발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유형 1은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유형 4는 역량에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행동과학, 법학, 수의학 전공의 1학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좋은 수업에 대한 특징을 조사하였는데, 전공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18]. 즉 행동과학 전공에서는 상대적으로 상호작용, 학생의 사전지식과 수업의 매칭, 비판적 사고 촉진을 매우 강조하였고 법학 전공에서는 강의법, 그룹워크, 좋은 수업 자료,

수업시설 등을 강조하였으며 수의학에서는 이론과 연구가 조화로운 수업, 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 직접 수행에 의한 학습을 좋은 수업의 특성으로 뽑은 비율이 높았다. 이는 수업에 대한 인식이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대학의 수업 진행 방식의 주체는 대학생이 아니라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대학 수업이 보다 다양한 학생들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려면,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대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욕구를 검토하여 교과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하여 학생들의 수요자 요구도 분석을 실시하여 교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등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며 그에 따른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대학생의 인식을 교과과정 및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이들이 수업에 대해 보이고 있는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러한 후속과정과 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가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H. H. Jeong, "A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Conceptions of Good Instruction in Higher Education : Based on the College of Education", *Korean education*, vol.43, no.1, pp. 231-259, 2016.
UCI : G704-000419.2016.43.1.007
- [2] S. J. Chae, "An Investigation on Curriculum Design in Outcome Based Curriculum", *Medical education*, vol.11, no.1, pp.3-9, 2009.
UCI : G704-SER000002144.2009.11.1.001
- [3] Feldman, K. A. "The superior college teacher from the student's view",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no.5, pp.243-288. 1976.
- [4] H. R. Min, "The characteristics of good teaching based on the students' awareness : The comparative analysis of actual learning experiences between A university in Korea and oversea universitie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19, no.1, pp.57-88, 2011.
UCI : G704-001282.2011.19.1.008
- [5] C. G. Koh, "An Ethnographic Study on the Instructional Characteristics Found in Elementary School Teachers: 'Good' Instruction : Focused on Act, Elicitation, Teaching Behavior Element, and Repair",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14, no.1, pp.25-49, 2006.
UCI : G704-001282.2006.14.1.008
- [6] Johnson-Farmer, B. J. & Frenn, M. "Teaching excellence: What great teachers teach u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25, no.5, pp.267-272. 2009.
- [7] McMahon, T. "Teaching for more effective learning: Seven maxims for practice", *Radiography*, vol.12, no.1, pp.34-44. 2006.
- [8] Eom, M., Kim, M. Chang, S., & Park, I. "A study on perception of good instruction between in-service and pre-service teacher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vol.15, no.1, pp.107-132. 2009.
UCI : G704-001273.2009.15.1.007
- [9] Kwon, S. "The differences in teachers' conceptions of the importance and practice of good teaching according to the level of school and teaching experience",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18, no.4, pp.78-103. 2010.
UCI : G704-001282.2010.18.4.011
- [10] Reid, D. J., & Johnston, M. "Improving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Student and teacher perspectives", *Educational Studies*, vol.25, no.3, pp.269-281, 1999.
- [11] Zimitat, C. "First year students' perceptions of the importance of good teaching: Not all things are equ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 Higher Education*, vol.29, pp.386-392. 2006.
- [12] Kang, H., Ko, E., Kim, T., Cho, W., Lee, K., & Lee, D. "Mathematics teachers' perspectives on competencies for good teaching and perspective teacher education", *School Mathematics*, vol.13, no.4, pp.633-649. 2011.
UCI : G704-000843.2011.13.4.009
- [13] Choi, S.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good teaching perceived by junior college student: Based on a case study of K college",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14, no.8, pp.517-527. 2014.
DOI : <https://doi.org/10.5392/JKCA.2014.14.08.517>
- [14] Brophy, J. Teaching (Educational practices series-1). Brussels ,Belgium: *International Academy of Education*, 2000.
- [15] Yune, S. "Analysis of good college teaching characteristics by multi-faceted approach", *Th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24, no.6, pp.963-976. 2012.
UCI : G704-001373.2012.24.6.011
- [16] Lee, S., Lee, Y., & Li, L. "Comparison of the high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perception on Good Instruction in Korea and China".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vol.18, no.3, pp.27-47, 2008.
UCI : G704-SER000002131.2008.18.3.001
- [17] Park, M. J. "Students' Perceptions of Good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An Essay-Review of College Students", *the study of humanities*, vol.75, pp.229-253. 2008. UCI : G704-001795.2008.35.3.002
- [18] Parpala, A., Lindblom-Ylänne, S., & Rytönen, H. "Students' conceptions of good teaching in three different disciplines". *Assessment &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vol.36. no.5, pp.549-563. 2011.

심 태 은(TaeEun Shim)

[정회원]



- 2003년 8월 :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교육학 석사)
- 2007년 8월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07년 6월 ~ 현재 : 동국대학교 교육혁신처 교수법 연구교수

〈관심분야〉

리더십, 교수학습, 교육행정, 입학전형, 핵심역량

이 송 이(Song Yi Lee)

[정회원]



- 2001년 10월 :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Health&Behavior Studies)
- 2007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관심분야〉

리더십, 에니어그램, 코칭, 아동청소년복지